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Received: April 29, 2022
Revised: May 31, 2022
Accepted: June 2, 2022

손영지¹, 이승연²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학생¹,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교수²

교신저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073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hildhood abuse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 Mediating effects of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emotion dysregulation

E-MAIL:
slee1@ewha.ac.kr

Youngji Son¹, Seung-yeon Lee²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²

© Copyright 2022.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발생 기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396명의 자기보고식 설문자료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은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거쳐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예측하였다. 즉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 경험은 적대적 귀인편향의 증가를 예측하고, 이어서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주어 부정적 양육행동의 증가로 이어졌다. 본 연구 결과 확인된 부정적 양육행동의 발생 기제를 기반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 적대적 귀인편향, 정서조절곤란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하여 심각하게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폭력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23.1% 더 늘었고(뉴스1, 2022.02.02),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여 지난해 43명이 목숨을 잃었다(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이를 위한 효과적 예방 및 개입전략의 개발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0년 1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되며,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 방임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체벌을 부모의 훈육방식 중 하나로 간주하는 유교 문화 속에서 학대와 훈육 간의 구분은 특히 쉽지 않으며, 가정 내 문화를 존중하려는 태도로 인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외부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 아동학대는 부정적 양육행동의 극단적인 형태로(Crandall et al., 2015), 가해자인 부모 대부분이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체벌의 효과성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되고 증가하게 된다.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해 이루어진 대다수의 국내 연구는 주로 아동기 학대 경험의 부정적 결과나 성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박선미, 이주영, 2021; 장원석, 김도연, 2017),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효과성 검증(박초희, 김정민, 2021; 이영애, 2016)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

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구체적인 기제에 초점을 둔 심리학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가 극단적 형태의 부정적 양육행동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발생에 기여하는 부모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학대나 방임과 가장 유사하며 상대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학대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Beckerman et al., 2017). 본 연구는 Rohner(1990, 2004)의 방식에 근거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며 강압적인 방식으로 훈육하고, 자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자녀를 무시하는 방식을 부정적 양육행동이라 정의하였다(Rohner, 1990, 2004).

먼저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 경험에 주목하였다. 아동기에 학대를 받았던 경우 성인이 되어 다시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세대 간 전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Sidebotham et al., 2006). 아동기에 학대를 받았던 어머니들은 학대받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지지적이거나 애정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이 적고, 자녀에게 가혹하거나 처벌적으로 반응하며, 신체적으로 처벌하는 가능성이 높았다(Begle et al., 2010; Bert, et al., 2009). 국내에서도 성장기에 학대나 방임을 겪은 사람은 자녀에 대해 적대적이며 처벌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유비 등, 2018).

학대하는 부모는 자신의 필요에만 기반하여 상호작용을 하고(Scott & Crooks, 2004), 일관성이 없거나 가혹하게 양육하기 때문에(Cicchetti et al., 2006),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할 경우 자녀는 긍

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동은 부모의 행동을 예측하고 해석하기 어렵게 되며, 반복된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타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감소되거나 왜곡된다(Luke & Banerjee, 2013). 게다가 학대하는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적절하게 수용하거나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동은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하지 못하며(Pavio & Laurent, 2001), 주변의 잠재적 위험 신호에 과잉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든다(Dodge et al., 1990). 이러한 과잉 경계반응은 흔히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된다.

사회정보처리모델에 따르면,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적대적 귀인편향은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 학대받은 경험이 있거나 자기방어나 보복을 중요시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경험들로 인해 만들어지며, 장기간 지속된다(Dodge, 2006). 실제로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적대적 귀인편향이 더 높았을 뿐 아니라(김은경, 이정숙, 2009), 성인의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학대 경험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Luke & Banerjee, 2013).

이러한 적대적 귀인편향과 공격성의 관계는 매우 잘 알려져 있으며(Crick & Dodge, 1994), 학대하거나 학대 위험성이 높은 부모들은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자녀 행동에도 적대적인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여(Crouch et al., 2017), 자녀를 향해 고향을 지르거나 자녀를 때리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였다(Halligan et al., 2007, Rutledge et al., 2018). 한편, 적대적 귀인편향은 의식하기 어려운 자동적 사고여서(Crouch et al., 2017) 쉽게 변하지 않으며, 부모의 적대적 귀인편향은 자녀의 행동이 발생된 전후 관계에 대한 이해나 감독을 어렵

게 만들기 때문에(Snyder et al., 2005), 이러한 부정적 양육행동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계는 종단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Healy et al., 2015).

한편, 학대와 같은 공격적이고 지지적이지 않은 환경은 개인의 정서조절을 심각하게 방해하는데(Ehring & Quack, 2010), 정서조절은 생의 초기부터 양육자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보살핌으로부터 발달하기 때문이다(Marziali et al., 2003). 더욱이 학대 상황에서 아동이 분노와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표현을 할 경우 양육자의 공격적 행동이 더 많이 야기될 수 있기에, 아동은 자신의 감정표현에 대한 억제를 지속하여 결국에는 정서조절곤란을 보이게 된다(Dvir et al., 2014). 정서조절곤란(emotion dysregulation)은 정서를 자각하고 이해하며 수용하는 능력이자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적인 반응을 조절하려는 능력, 그리고 개인적 목표와 환경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말한다(Gratz & Roemer, 2004). 실제로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과도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부정적 감정에 쉽게 압도되어 스스로를 진정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Shields & Cicchetti, 1998). 이러한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성인기까지 이어져 더 많은 스트레스와 좌절을 초래하며(Rodriguez et al., 2021), 심할 경우 자신의 부적 정서를 통제하기 위해 자해와 같은 자기파괴적인 극단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Luxenberg et al., 2001).

일반적으로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부모가 아동의 요구에 맞추어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루기 어려운 아동의 행동에 직면하여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

리는 것은 필수적이다(Barrett & Fleming, 2011). 그러나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어머니는 자녀와의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더 많은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하며(Harel & Finzi-Dottan, 2018), 가혹하고 처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Rodriguez et al., 2021; Rutherford et al., 2015). 국내에서도 어머니의 정서조절곤란은 부정적이며 통제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혜원, 유성경,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이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자녀를 강압적으로 훈육하거나 자녀에게 무심한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였다.

한편, 이러한 정서조절곤란은 적대적 귀인편향과도 관련이 있다.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나, 한 실험연구에서 위협과 같은 특정 자극에 대한 편향이 성인들의 정서조절곤란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였으며(Bardeen et al., 2017), 섭식장애 환자군 대상의 실험연구에서 분노의 얼굴표정에 대한 주의 편향이 정서조절곤란을 정적으로 예측한 바 있다(Harrison et al.,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상황에서 상대의 적대적 의도나 그로 인한 위협을 편향되게 지각할 경우 정서조절곤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이 적대적 귀인편향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부정적 양육행동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발생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구체적 기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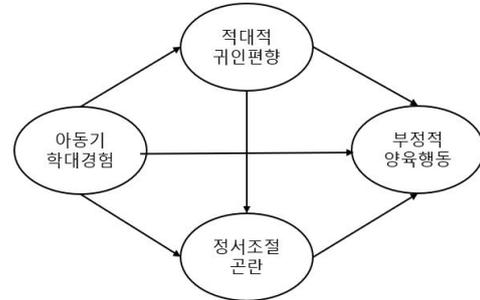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연구 문제 1.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효과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2022년 2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1~3학년인 어머니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업체 엠브레인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일부 변인에서 표준화 점수(Z-score) 변환 시 절대값 3을 초과한 4명을 제외하여 총 39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평균연령은 만 39세($SD=3.51$)였고, 참여자의 39%가 정규직 회사원으로, 38%는 전업주부로 보고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48.7%), 중(38%), 하(13.4%) 순으로 나타났으며,

첫째 자녀의 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 33.8%, 2학년 33.1%, 1학년 33.1%로 보고되었다.

연구도구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Rohner(1990)가 개발한 부모 수용-거부 질문지(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를 김한나(2011)가 번역한 어머니 보고용을 원본과 대조하여 수정·사용하였다. 어머니 보고용은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행동을 보고하는 것으로 온정/애정 20문항(예: 나는 우리 아이에 대해 좋게 말한다), 공격성/적대 15문항(예: 나는 우리 아이를 때릴 필요가 없을 때에도 때린다), 무시/무관심 15문항(예: 나는 우리 아이를 무시한다), 그리고 구분되지 않은 거부(undifferentiated rejection) 10문항(예: 우리 아이가 나에게 짐이 된다)의 네 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0문항이다. 본 연구는 부정적 양육행동의 측정을 위해 공격성/적대, 무시/무관심, 거부 세 척도를 사용하되, 검사문항 자체가 부정적인 측면만 반영하여 응답자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온정/애정 척도 중 10문항을 함께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거의 항상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행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전 세계 52개 언어로 번역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hner & Ali, 2020). 김한나(201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 본 연구에서도 .93이었다.

아동기 학대경험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하고 유재학 등

(2009)이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the Korean version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K-CTQ)를 사용하였다. 신체학대 5문항(예: 회초리, 벨트, 나무막대 등 단단한 물건으로 맞았었다), 신체방임 5문항(예: 나는 배불리 먹지 못했다), 정서학대 5문항(예: 우리 가족은 나를 멍청이, 게으름뱅이, 바보, 병신이라고 놀렸다), 정서방임 5문항(예: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 - 정서방임은 모두 역채점), 성학대 5문항(예: 나는 성적으로 학대당했다)의 다섯 개 하위요인과 부정 오류(false negative)를 감별하는 타당도 척도 3문항을 포함하여 총 28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나 방임 등의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유재학 등(2009)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9,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적대적 귀인편향

Coccaro 등(2009)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사회적 정보처리-귀인과 정서적 반응 질문지(Social Information Processing-Attribution and Emotional Response Questionnaire: SIP-AEQ)를 본 연구진과 이중언어자인 심리학과 석사과정생이 함께 이중 역번역하여 사용하였다. SIP-AEQ는 여덟 가지 모호한 사회적 상황을 제시하고, 시나리오 속 인물의 행동 의도와 정서적 반응을 평가한다. 개인이 의도를 해석하는 방법은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뿐 아니라 행동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포함된다. 행동에 대한 의도는 직접적인 적대적 귀인(예: 내가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길 원했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적대적 귀인(예: 내가 고객에게 나쁜 인상을 주도록 만들고 싶어서였다), 도구적

귀인(예: 회의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립적 귀인(예: 내 동료는 실수로 그랬다)의 네 가지 귀인을 통해 측정된다. 정서적 반응은 시나리오 속 각 상황에 대해 경험하는 분노(예: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면, 당신이 화가 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와 당혹감(예: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면, 당신이 당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시나리오 세 개(예, 태권도 시합, 동호회, 친구와의 주말여행)를 제외 후 다섯 개 시나리오만 사용하였으며, 본 척도를 개발한 Coccaro 등(2009)의 설명에 따라 직접적인 적대적 귀인, 간접적인 적대적 귀인, 정서적 반응의 합으로 적대적 귀인편향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의 모호한 행동에 대한 적대적 귀인편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예림과 강혜자(2021)의 성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3,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정서조절곤란

Gratz와 Roemer(2004)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조용래(2007)가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를 사용하였다. 총동통제곤란 5문항(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7문항(예: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기울인다),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8문항(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정서적 명료성 부족 3문항(예: 내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

근 제한 6문항(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 4문항(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일들에 집중하기가 어렵다)의 여섯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 부족'을 제거하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 이 요인이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다소 이질적이며(조용래, 2007), 요인부하량이 낮아 제외되었던 것과 동일하다(Bardeen et al., 2016; 이유미, 정주리, 2020). 조용래(2007)의 성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자료분석

SPSS 25.0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를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Mplus 7.0 프로그램으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하였다. 안정적 모형 추정을 위해 척도의 측정오차를 줄이는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 아동기 학대경험, 적대적 귀인편향, 정서조절곤란, 부정적 양육행동 모두 원척도에 하위요인이 있어 내용 기반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10,000번의 무선표집을 통해 95% 신뢰구간에서 검증하였다(Bollen & Stine, 1990).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은 적대적 귀인편향($r=.32, p<.001$), 정서조절곤란($r=.38, p<.001$) 및 부정적 양육행동($r=.32, p<.001$)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적대적 귀인편향도 정서조절곤란($r=.41, p<.001$) 및 부정적 양육행동($r=.21,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곤란도 부정적 양육행동($r=.55, p<.0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측정모형 검증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검증방식에 따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측정변인들의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는데, 왜도는 .04~1.42, 첨도는 .26~1.73으로 나타나 Kline(2011)의 단변량 정규성

기준(왜도 $\leq |3|$, 첨도 $\leq |10|$)을 만족시켰다. 이어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값은 599.99($df=129, p<.001$)로 유의했지만, CFI는 .926, SRMR은 .067, RMSEA는 .085(90% CI=.076-.094)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Hu & Bentler, 1999). 한편,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아동기 학대경험 .46~.93, 적대적 귀인편향 .41~.90, 정서조절곤란 .70~.90, 부정적 양육행동 .76~.94로 Floyd와 Widaman(1995)의 .40초과 기준을 충족하여 수렴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도 .14~.59로 나타나 Kline(2011)의 .90미만 기준이 충족되어 변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모형적합도 결과는 측정모형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은 표 2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은 적대적 귀인편향($r=.39, p<.001$), 정서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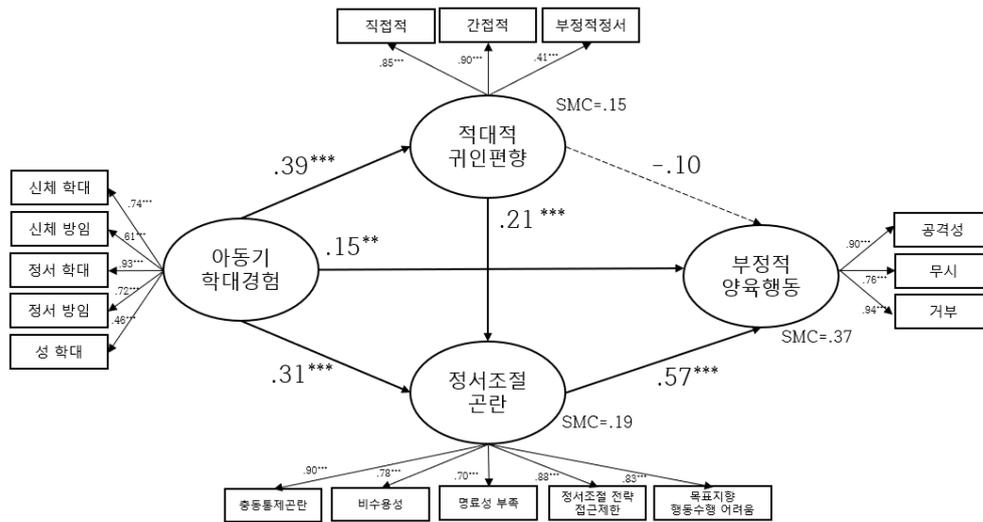
	1	2	3	4
1. 아동기 학대경험	-			
2. 적대적 귀인편향	.32***	-		
3. 정서조절곤란	.38***	.41***	-	
4. 부정적 양육행동	.32***	.21***	.55***	-
평균	1.66	1.48	2.56	1.78
표준편차	.56	.24	.60	.39
왜도	1.42	-.04	.06	.53
첨도	1.73	.74	-.27	-.26

* $p<.05$, ** $p<.01$, *** $p<.001$

표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아동기 학대경험 → 적대적 귀인편향	.02***	.03	.39
아동기 학대경험 → 정서조절곤란	.39***	.07	.31
아동기 학대경험 → 부정적 양육행동	.11**	.04	.15
적대적 귀인편향 → 정서조절곤란	.47***	.13	.21
적대적 귀인편향 → 부정적 양육행동	-.13	.07	-.10
정서조절곤란 → 부정적 양육행동	.33***	.03	.57

* $p < .05$. ** $p < .01$. ***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모두 표준화된 수치임.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

조절곤란(= .31, $p < .001$) 및 부정적 양육행동(= .15, $p < .01$) 모두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적대적 귀인편향은 정서조절곤란(= .21, $p < .001$)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부정적 양육행동은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10, $p = ns$). 마지막으로 정서조절곤란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57, $p < .001$).

매개효과 검증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래핑 분석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표 3 참조),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표 3.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lower	upper
아동기 학대 → 적대적 귀인 → 양육	-.030	-.065	.006
아동기 학대 → 정서조절곤란 → 양육	.130***	.075	.186
아동기 학대 → 적대적 귀인 → 정서조절곤란 → 양육	.034**	.010	.059
아동기 학대 → 양육 총 간접효과	.135***	.076	.194

* $p < .05$, ** $p < .01$, *** $p < .001$

주. 아동기 학대= 아동기 학대경험, 양육= 부정적 양육행동

Bollen과 Stine(1990)의 기준을 만족하여,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그리고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을 차례로 거치는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발생에 대한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보다 흔하게 발생하며 아동학대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부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를 처벌적이고 통제적으로 양육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Begle et al., 2010; Bert, et al., 2009).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아동이 부모의 행동을 반복하여 관찰함으로써 타인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 방법으로 공격성을 학습하게 되는 것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Bandura, 1973).

한편,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은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부정적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에 학대를 당했던 사람은 부모와의 긍정적 애착관계를 통해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하지 못하게 되고(Paivio & Laruent, 2001), 그 결과 정서조절곤란을 겪게 된다(Ehring & Quack, 2010). 이들은 예측 불가능한 학대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지만, 정서조절곤란으로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압도당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Shields & Cicchetti, 1998), 타인을 향한 방어적 태도와 공격적 반응을 보이기 쉽다(Luxenberg et al., 2001). 자신의 자녀를 양육해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머니가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좌절과 불안을 더 경험하게 되면서 자녀에 대한 부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하게 된다

고 할 수 있다(Rodriguez et al., 2021).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게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 경험이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거쳐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어머니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경험은 환경 내 위험신호에 극도로 민감하게 만들면서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서도 상대의 행동을 적대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편향되게 해석하게 만든다(Marzial et al., 2003). 특정자극(예, 위협, 분노)에 대한 편향이 정서조절곤란을 설명한다는 연구결과들처럼(Bardeen et al., 2017; Todd et al., 2012), 사회적 상황에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개인의 선택적 주의와 편향된 해석은 어머니의 정서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부적절한 정서조절능력은 발생한 문제에 비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만들기 때문에(Gohm & Clore, 2002), 어머니의 정서조절곤란은 자녀를 향한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어머니의 적대적 귀인편향은 아동기 학대 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 간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경험으로 인한 적대적 귀인편향이 가혹하고 처벌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Crouch et al., 2017; Halligan et al., 2007)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 상관분석 시 적대적 귀인편향이 부정적 양육행동과 정적상관이 있었음에도, 구조모형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부정적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정도가 더 강력함으로써 그 효과가 상쇄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적대적 귀인편향에 대한 측정도구의

차이도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처럼 응답자의 차량 문이 타인에 의해 손상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귀인을 평가하는 대신, 직접적으로 자녀 양육 상황에서 자녀와 관련된 귀인을 측정했던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적대적 귀인편향이 부정적 양육행동을 예측했다(Crouch et al., 2017; Halligan et al., 2007; Healy et al., 2015).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적대적 귀인편향을 자녀와 관련된 시나리오로 측정하여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나타내는지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행동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적 대처전략이나 의사소통기술 향상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김혜원, 유성경, 2017),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이나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훈육 방식,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정서의 인식이나 표현, 조절과 관련된 기본 능력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어머니가 아동기에 자신의 부모에 의해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경우 이로 인한 다양한 부적응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 노출치료(prolonged exposure)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속적 노출치료는 학대와 같은 외상에 대한 가장 성공적인 치료기법 중 하나로(Foa & Rothbaum, 2001), 외상 경험자가 치료자와 함께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외상 기억을 구체적으로 반복하여 말하도록 함으로써 외상 기억에 의한 강한 정서적 반응이나 공포에 둔감해져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한편, 외상은 외상사건 그 자체보다는 외상사건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나 기억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대 경험으로 인한 자기, 타인, 세상에 대한 부적응적인 사고와 신념을 파악하고, 이러한 신념이 현재의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적응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지행동 치료는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는 가해 부모들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었다(박초희, 김정민, 2021).

또한 학대 경험으로 인한 어머니의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적절한 개입을 요한다. 즉 상대방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훈련이나(Hawkins & Cogle, 2013)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역할극 및 토론 활동(Hudley & Graham, 1993)을 통하여 어머니의 적대적 귀인편향을 다루어준다면, 적대적 귀인편향으로 인한 어머니의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양육행동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심리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다.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나 좌절이 아이에게 투사되어 자신이 화가 난 것을 아이가 화낸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 결국 자녀에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아동학대와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의 발생 기제를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는 기존의 아동학대 연구나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의 해결방법에 주로 초점을 두었던 것(김혜원, 유성경, 2017)과

차별화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세대 간 전이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렸을 때 학대를 경험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나 학대행동을 줄이기 위해 주목해야 할 부모의 특성과 효과적 개입전략에 대해 제시했다는 의의도 지닌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몇 제한점을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 더 빈번히 일어나는 생후 3개월부터 3세(Marziali et al., 2003), 그리고 증가된 자율성으로 부모와 부딪힘이 많이 생기는 청소년 시기(Azar & Wolfe, 2006)에 아동학대가 더 빈번하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는 자녀의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주양육자인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아버지 역할에 대한 최근의 증가된 관심을 고려하여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를 대상으로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어머니의 적대적 귀인편향을 측정할 때 직접적으로 양육 상황으로 한정하여 측정할 후 본 연구모형을 반복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서와 인지의 선후 관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으므로(Crick & Dodge, 1994; Lemerise & Arsenio, 2000), 추후 종단연구를 통해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간의 관계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아동기 학대경험은 5점 척도 상 1.66로 매우 낮고, 부정적 양육행동도 4점 척도 상 1.78로 낮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정적 양육행동의 발생 기제를 안정적으로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아동기에 학대나 방임을 경

험한 적이 있거나 자녀의 학대에 관여한 부모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김은경, 이정숙 (2009). 아동의 학대경험이 정서와 인지적 편향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18.
- 김한나 (2011). **여성ACOs(Adult Children of Alcoholics: 알콜중독자 성인자녀)의 원가족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 우울 및 부부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원, 유성경 (2017). 부모의 성인애착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 결혼불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99-226.
<http://doi.org/10.23844/kjcp.2017.02.29.1.199>
- 박선미, 이주영 (2021). 아동기 외상 유형이 대학생의 대인관계철회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경직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3(1), 75-96.
- 보건복지부 (2021).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367066
- 박초희, 김정민 (2021). 인지행동치료 기반 부모훈련프로그램이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2(1), 103-118.
<http://dx.doi.org/10.22143/HSS21.12.1.8>
- 유 비, 최진영, 김기현, 김경희 (2018). 아동학대 행위자의 양육행동 영향요인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4, 107-143.
<http://doi.org/10.24300/jkscw.2018.12.64.107>
- 유예림, 강혜자 (2021).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편향 및 전위된 공격성 간의 관계: 의도적 통제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60(2), 383-406.
<http://doi.org/10.22418/JSS.2021.8.60.2.383>
-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2009).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타당화= 상담 및 치료적 개입에서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563-578.
<http://doi.org/10.17315/kjhp.2009.14.3.006>
- 이영애 (2016). 놀이치료 과정에서 학대받은 아동의 외상 후 놀이특성 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9(4), 335-362.
<http://doi.org/10.17641/KAPT.19.4.4>
- 이유미, 정주리 (2020). 성인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1(1), 101-124.
<https://doi.org/10.15753/aje.2020.03.21.1.101>
- 장원석, 김도연 (2017). 아동학대가 후기 청소년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 절전략과 감정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2(2), 79-96.
<https://doi.org/10.23931/kacp.2017.12.2.79>
- 전준우 (2022.02.02.) 코로나 장기화에 지난해 서울시 아동·노인 학대 범죄 급증.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570552>.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https://doi.org/10.15842/kjcp.2007.26.4.012>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https://doi.org/10.1037/0033-2909.103.3.411>
- Azar, S. T., & Wolfe, D. A. (2006). Child physical abuse and neglect. In E. J. Mash & R. A. Barkley (Eds.), *Treatment of childhood disorders* (2nd ed., pp.501-54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deen, J. R., Daniel, T. A., Hinnant, J. B., & Orcutt, H. K. (2017). Emotion dysregulation and threat-related attention bias variability. *Motivation and Emotion*, 41(3), 402-409.
<https://doi.org/10.1007/s11031-017-9604-z>
- Bardeen, J. R., Fergus, T. A., Hannan, S. M., & Orcutt, H. K. (2016). Addressing psychometric limitations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through item mod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3(3), 298-309.
<https://doi.org/10.1080/00223891.2015.1091774>
- Barrett, J., & Fleming, A. S. (2011). Annual research review: All mothers are not created equal: Neural and psychobiological perspectives on mothering and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4), 368-397.
<https://doi.org/10.1111/j.1469-7610.2010.02306.x>
- Begle, A. M., Dumas, J. E., & Hanson, R. F. (2010). Predicting child abuse potential: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wo theoretical framework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9(2), 208-219.
<https://doi.org/10.1080/15374410903532650>
- Benkerman, M., van Berkel, S., Mesman, J., & Alink, L. R. A. (2017). The role of negative parental attributions in the associations between daily stressors, maltreatment history, and harsh and abusive discipline. *Child Abuse & Neglect*, 64, 109-116.
<https://doi.org/10.1016/j.chiabu.2016.12.015>
- Bernstein, D. P., & Fink, L. (1998). *Childhood*

-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San Antonio, TX: Harcourt Brace.
- Bert, S. C., Guner, B. M., & Lanzi, R. G. (2009). The influence of maternal history of abuse on parenting knowledge and behavior. *Family Relations, 58*(2), 176-187.
<https://doi.org/10.1111/j.1741-3729.2008.05455x>.
- Bollen, K. A., & Stine, R. (1990). Direct and indirect effects: Classical and bootstrap estimates of variability. *Sociological methodology, 20*, 115-140.
<https://doi.org/10.2307/271084>
- Cicchetti, D., Rogosch, E., & Toth, S. (2006). Fostering secure attachment in infants in maltreating families through preventive intervention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3), 623-649.
<https://doi.org/10.1017/S0954579406060329>
- Coccaro, E. F., Noblett, K. L., & McCloskey, M. S. (2009). Attributional and emotional responses to socially ambiguous cues: Validation of a new assessment of social/emotional information processing in healthy adults and impulsive aggressive patient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3*(10), 915-925.
<https://doi.org/10.1016/j.jpsychires.2009.01.012>
- Crandall, A., Deater-Deckard, K., & Riley, A. W. (2015). Maternal emotion and cognitive control capacities and parenting: A conceptual framework. *Developmental Review, 36*, 105-126.
<https://doi.org/10.1016/j.dr.2015.01.004>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101.
<https://doi.org/10.1037/0033-2909.115.1.74>
- Crouch, J. L., Irwin, L. M., Milner, J. S., Skowronski, J. J., Rutledge, E., & Davila, A. L. (2017). Do hostile attributions and negative affect explain the association between authoritarian belief and harsh parenting? *Child Abuse & Neglect, 67*, 13-21.
<https://doi.org/10.1016/j.chiabu.2017.02.019>
- Dodge, K. A. (2006). Translational science in action: Hostile attributional style and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3), 791-814.
<https://doi.org/10.1017/S0954579406060391>
-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0). Mechanisms in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50*(4988), 1678-1683.
<https://doi.org/10.1126/science.227048>
- Dvir, Y., Ford, J. D., Hill, M., & Frazier, J. A. (2014). Childhood maltreatment, emotional dysregulation, and psychiatric comorbidities. *Harvard Review of*

- Psychiatry*, 22(3), 149-161.
<https://doi.org/10.1097/HRP.0000000000000014>
- Ehring, T., & Quack, D. (2010).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in trauma survivors: The role of trauma type and PTSD symptom severity, *Behavior Therapy*, 41(4), 587-598.
<https://doi.org/10.1016/j.beth.2010.04.004>
- Floyd, F. J., & Widaman, K. F. (1995). Factor analysis i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3), 286-299.
<https://doi.org/10.1037/1040-3590.7.3.286>
- Foa, E. B., & Rothbaum, B. O. (2001). *Treating the trauma of rape: A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PTS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Gohm, C. L., & Clore, G. L. (2002). Four latent traits of emotional experience and their involvement in well-being, coping, and attributional style. *Cognition & Emotion*, 16(4), 495-518.
<https://doi.org/10.1080/02699930143000374>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http://dx.doi.org/10.1007/s10862-008-9102-4>
- Halligan, S. L., Cooper, P. J., Healy, S. J., & Murray, L. (2007). The attribution of hostile intent in mothers, fathers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4), 594-604.
<https://doi.org/10.1007/s10802-007-9115-6>
- Harel, G., & Finzi-Dottan, R. (2018). Childhood maltreatment and its effect on parenting among high-risk par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5), 1513-1524.
<https://doi.org/10.1007/s10826-017-0994-z>
- Harrison, A., Tchanturia, K., & Treasure, J. (2010). Attentional bias, emotion recognition, and emotion regulation in anorexia: State or trait?. *Biological Psychiatry*, 68(8), 755-761.
<https://doi.org/10.1016/j.biopsych.2010.04.037>
- Hawkins, K. A., & Cogle, J. R. (2013). Effects of interpretation training on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reactivity to interpersonal insult. *Behavior Therapy*, 44(3), 479-488.
<https://doi.org/10.1016/j.beth.2013.04.005>
- Healy, S. J., Murray, L., Cooper, P. J., Hughes, C., & Halligan, S. L. (2015).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maternal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child hostile attribu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 Psychology*, 44(1), 80-92.
<https://doi.org/10.1080/15374416.2013.850698>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Hudley, C., & Graham, S. (1993). An attributional intervention to reduce peer directed aggression among African American boys. *Child Development*, 64(1), 124-138.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3.tb02899.x>
- Kline, R. B. (2011). Convergen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level modeling. In M. Williams & W. P. Vogt (Eds.), *Handbook of methodological innovation* (pp. 562-589). London, England: Sage.
<https://dx.doi.org/10.4135/9781446268261.n31>
- Lemerise, E. A., & Arsenio, W. F. (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1), 107-118.
<https://doi.org/10.1111/1467-8624.00124>
- Luke, N., & Banerjee, R. (2013). Differentiated associations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s and social understanding: A meta-analysis and systematic review. *Developmental Review*, 33(1), 1-28.
<https://doi.org/10.1016/j.dr.2012.10.001>
- Luxenberg, T., Spinazzola, J., & Van der Kolk, B. A. (2001). Complex trauma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 (DESNOS) diagnosis, part one: *Assessment. Directions in Psychiatry*, 21(25), 373-392.
- Marziali, E., Damianakis, T., & Trocmé, N. (2003). Nature and consequences of personality problems in maltreating caregivers. *Families in Society*, 84(4), 530-538.
<https://doi.org/10.1606/1044-3894.141>
- Paivio, S. C., & Laurent, C. (2001). Empathy and emotion regulation: Reprocessing memories of childhood abu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7(2), 213-226.
[https://doi.org/10.1002/1097-4679\(200102\)57:2<213::AID-JCLP7>3.0.CO;2-B](https://doi.org/10.1002/1097-4679(200102)57:2<213::AID-JCLP7>3.0.CO;2-B)
- Rodriguez, V. J., Are, F., Madden, A., Shaffer, A., & Suveg, C. (202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hood Maltreatment Mediated by Maternal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0(8), 2068-2075.
<https://doi.org/10.1007/s10826-021-02020-3>
- Rohner, R. P. (1990).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CT: University of Connecticut,

- Ronald and Nancy Rohner Center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 Rohner, R. P. (2004). The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Syndrome": Universal Correlates of Perceived Rejection. *American Psychologist*, 59(8), 830-840. <https://doi.org/10.1037/0003-066X.59.8.830>
- Rohner, R. P., & Ali, S. (2020).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 *Encyclopedia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25-3427. https://doi.org/10.1007/978-3-319-24612-3_56
- Rutherford, H. J. V., Wallace, N. S., Laurent, H. K., & Mayes, L. C. (2015). Emotion regulation in parenthood. *Developmental Review*, 36, 1-14. <https://doi.org/10.1016/j.dr.2014.12.008>
- Rutledge, E. L., Crouch, J. L., Valentiner, D. P., Davila, A. L., Milner, J. S., & Skowronski, J. J. (2018). Are implicit personality theories associated with parental reactions to child trans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8, 113-121. <https://doi.org/10.1016/j.paid.2018.02.021>
- Scott, K. L., & Crooks, C. V. (2004). Effecting change in maltreating fathers: Critical principles for intervention planning.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1(1), 95-111. <https://doi.org/10.1093/clipsy.bph058>
- Shields,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4), 381-395.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704_2
- Sidebotham, P., Heron, J., & ALSPAC Study Team. (2006). Child maltreatment in the "children of the nineties": A cohort study of risk factors. *Child Abuse & Neglect*, 30(5), 497-522. <https://doi.org/10.1016/j.chiabu.2005.11.005>
- Snyder, J., Cramer, A., Afrank, J., & Patterson, G. R. (2005). The Contributions of Ineffective Discipline and Parental Hostile Attributions of Child Misbehavior to the Development of Conduct Problems at Home and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30-41. <https://doi.org/10.1037/0012-1649.41.1.30>
- Todd, R. M., Cunningham, W. A., Anderson, A. K., & Thompson, E. (2012). Affect-biased attention as emotion regula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6(7), 365-372. <https://doi.org/10.1016/j.tics.2012.06.003>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hildhood Abuse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 Mediating Effects of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Emotion Dysregulation

Youngji Son¹

Seung-yeon Lee²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²

In order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influencing the occurrence of child abuse, this study focused on the mother's negative parenting behavior.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emotion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experience of childhood abuse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 Data of 396 mothers with children from grade 1 to 3 in elementary school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s a result, mother's childhood abuse directly predicted negative parenting behavior. In addition, emotion dysregulation showe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the path between mother's childhood abuse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 Furthermore, the double mediating effect was significan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hildhood abuse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 In other words, mother's childhood abuse predicted an increase in hostile attribution bias,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a high level of emotion dysregulation, further leading to an increase in negative parenting behavior. Finally, effective prevention strategies along with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Keywords : negative parenting behavior, mother's childhood abuse, hostile attribution bias, emotion dysregulation